



국무조정실, 국가지속가능발전 싱크탱크 만든다

-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에 한국환경연구원 지정
 - 연구센터 지정·운영 계기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활용성 및 전문성 강화
- 【관련 국정과제】 15.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

- 국무조정실(실장 윤창렬)은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에 따라 지정 심사를 실시하여 처음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했다.
 -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됐으며, 지정·운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다. 연구센터에는 올해 약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.
 - 연구센터는 △지속가능발전 조사·연구 △지속가능성 평가 △국제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△정보망 구축·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,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을 전담 지원하는 싱크탱크로서 기능하게 된다.
- 국무조정실은 연구센터 지정·운영을 계기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개발하고,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.
 - 연구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△지속가능발전 사전검토 심의 내실화 △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정보 종합 제공 △국내외 파트너십 강화 △국가보고서 발간 등을 수행하고,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분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 장 박흥희 (044-200-2526)
	지속가능발전추진단	담당자	사무관 이영재 (044-200-2527)



□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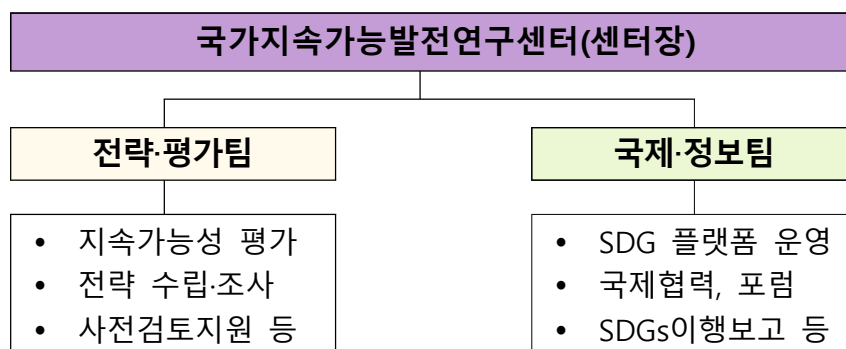
- 과학적·전문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·평가, 국내외 SDG정보 종합 제공, SDG 정책 수립을 전담 지원하는 싱크탱크 지정·운영
- 연구센터는 △지속가능 데이터 통합 관리 △상시 모니터링 기반 마련 △취약분야 환류 개선을 위한 종합적·전문적인 싱크탱크 역할
- ※ (근거)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27조 제4항 및 제22조, 국정과제 15(실천과제1)

□ 지정기간 및 방법

- (지정기간) '26.2월 ~ '28.12월(3년간)
- (소요예산) 연간 약 15억원
- (계약방법)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, 공모 방식으로 1개소 지정

□ 연구센터 추진체계

- (조직 구성) 총 9명 이상으로 구성
- 센터장(1명), 전략·평가팀(4명), 국제·정보팀(4명) ※ 박사 5인, 석사 이상 4인



- (역할) 지속가능발전 조사·연구, 행정계획 검토 지원, 해외 동향 등 이슈 분석, 정보망 구축·운영, 지속가능성평가, 지표의 개발·보급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중심으로 국가위원회 및 추진단 업무 지원